

한국, 아르헨티나 공략법

“중원압박 패턴패스 막고 포백 역이용을”

2010 남아공 월드컵

“미드필더들의 패턴 된 패스와 포백(4-back)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난적’ 그리스를 격파한 태국전사들이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2차전(17일 오후 8시30분·사커시타 스타디움)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 걸린 한판 대결을 준비한다.

한국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미국과 1-1로 비기고, 2006년 독일 대회에도

프랑스와 1-1로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두 대회 연속 조별리그 2차전 무승부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통계만 따진다면 한국은 오는 17일 맞붙을 아르헨티나와 경기도 무승부의 가능성이 큰 셈이다. 더구나 허정무(55) 감독도 승점 4점을 16강 진출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만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적만 거둔다면 한국으로선 16강 진출의 9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한국의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와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환상적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에 이어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의 폭발적 돌파를 앞세워 1-0으로 승리했지만 막강한 화력에 마지막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

기면서 대량 득점은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24년 만에 맞붙는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공격 패턴과 포백(4-back)의 성향을 역으로 이해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조언한다.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그)이 원톱으로 나서고 그 뒤를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받치는 4-2-3-1 전술로 나섰다. 또 중앙 미드필더에 후안 베론(에스투디안테스)과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리버풀)가 맡았다.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메시를 투톱 공격수로 쓰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결국 메시의 최적 포지션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낙점하면서 아르

헨티나의 공격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날 경기에서 마스체라노는 수비에만 집중하면서 모든 공격의 시발점은 베론의 발끝에서 시작했다.

베론이 볼을 잡으면 곧장 메시에게 연결됐고, 메시는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면서 드리블을 통해 중앙을 돌파하거나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드는 테베스나 전방에 포진한 이과인에게 ‘킬 패스’를 내줘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메시는 자신에게 수비가 몰리면 볼을 돌리고 자신은 위험지역으로 파고들면서 리턴 패스를 받아 슈트를 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이과인-메시-베론-테베스-앙헬 디마리아(벵고카) 5명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

격을 이어가는 일정한 패턴의 공격을 반복했다.

박문성 SBS 해설위원은 “베론이 메시에게 볼을 내주는 패턴으로 모든 공격이 이뤄진다. 나이지리아가 이날 후반에 중원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아르헨티나도 한동안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집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려 베론과 메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 상대의 공격 속도를 늦추기만 한다. 이를 위해 허 감독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왼쪽 측면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동시키고 김경우(광주상무)와 기성용(셀틱) 또는 김남일(통 톨스크)을 중앙에 배치하는 4-2-3-1 전술을 복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연필뉴스

공사비 더 주고... 카드 연체료 수천만원

감사원 광주·전남 지자체 방만한 재정운영 무더기 적발

예산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세급으로 카드 연체료 수천만원을 내는 가 하변, 토지보상금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땅 소유권을 넘기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일삼아 온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더 쓰고, 카드 연체료까지 =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예산 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으로써

무려 1억7235만412원을 연체했고 추가로 부담한 연체 수수료만 5425만9639원에 이른다.

지난 2006년의 경우 편성된 예산(시장 업무추진비 8억6030만원)보다 7593만3000원이 더 많은 9억3623만3000원을 집행한 것 비롯, ▲2007년 8억9492만1000원(3462만1000원 초과) ▲2008년 9억7570만7000원(690만7000원 초과) 등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연체된 법인카드 금액도 ▲2008년 1억7235만421원(연체수수료 2224만7671원) ▲2009년 1억5092만

9759원(/ 1705만67원) 등에 달한다. ◇없는 예산에 공사비 더 주고 = 화순군은 지난해 ‘유전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건설업체가 호안(護岸)쌓기에 사용한 돌(5176t)이 계약과 다른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업체가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1t당 1만9953원에 구입한 것으로 인정해 결과적으로 1억1천360만4400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토지보상금만 주고 소유권 이전은 나몰라라 = 신안군은 지난해까지 진리~예리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80개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금 8억1686만4000원을 지급하고 783필지 24만3226㎡의 토지를 편입하고도 정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81필지 5만5232㎡(보상금 1억3552만4120원)의 토지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가면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금 횡령, 공탁금 미수령 등 = 광주시 서구·광산구와 전남 광양시·나주시·여수시·화순군 등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이 공탁되면 즉시 수령해 세입조치해야 하는데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시효가 만료돼 국고로 귀속시켰다. 이렇게 국고로 넘어간 금액만 광주 3건에 1846만4110원, 전남 8건에 2466만6388원에 이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시민주 청약’ 참여하세요
광운대 광주시장 당선자가 12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 청약의 날’ 행사에 참여, 시민주를 청약하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 응원전과 함께 열린 이날 청약 행사에는 3만여명이 참가해 1억6000여만원의 시민주를 청약했으며, 당 당선자는 시장직 첫 급여의 절반을 시민주 청약행사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이렇게 놀래켜도 되나 모르겠다

李대통령 오늘 政·靑 개편 TV 연설

4대강·세종시 입장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TV로 생방송되는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적개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연설에서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국정과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기존대로 녹화 방식의 라디오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후 정국 변화를 감안해 TV 생방송 연설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겸허

히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그간의 중도실용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소통과 개혁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민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최근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노출된 검찰과 경찰, 교육 개혁에 진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완도 전북 등 4개 사업 집중 육성

완도의 전북산업이 고부가가치 웰빙 식품으로 집중 육성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지역산업소위원회 열고, 올해 지원할 지역연계 산업으로 완도의 전북산업 육성 등 모두 2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연계산업 육성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발전 주체들이 기술개발, 네트워킹,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광주의 경우 ▲

친환경 기능성 힐링가든사업(광주디자인센터), 전남에서는 ▲완도군 전복산업육성(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목포·영암·신안군의 신성장을 위한 녹색해양기자재 산업체제 구축(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 ▲화순·무안군의 친환경 약용자원 유통시스템 구축 및 강화사업(목포대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6억원씩 기술개발·인력양성·마케팅 활동에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도교육청 ‘돈봉투사건’ 교과부 내일부터 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의 교육청 공무원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 발인과 관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 상시감찰팀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15일부터 3일간 도 교육청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장만재 당선자가 최근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 다이내스티 C·C 사원 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진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모집부서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	남 0명	골프기운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여 0명	조리사, 웨이터, 웨이치레스, 주부사원(30대)	경력, 신입
시설팀	남 0명	전기	전기신입기사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 복지제도
 - 기숙사 제공 / 1일3식 제공 / 4대보험
 - 년차휴가 / 주1회 휴무제공
 - 회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등 기타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신남 함평공고교민회 공창리 신176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접수 : 061-820-7710
 - E-mail 접수 : mannewang@hanmail.net
 - 문의 전화 : 061-820-7718(내선4)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제금융 전문인력, 지금 준비하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및 환위험 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무역금융 전문가 과정

○ 과정 소개

교육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로 외환·국제금융 관련 업무(외환관리, 해외영업, 자금, 회계, 경리 등) 담당(예정)자 및 경영자(인원)
교육 내용	환위험 관리 및 무역금융 관련 지식, 기법 습득 등
접수처	한국금융연수원에 팩스로 신청(재직증명서 제출) 과정별 중복 지원 가능
선발	선착순 (단,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배제)
수료 기준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
지원 사항	교육비 무료 (교재 및 식비 제공)

○ 일정

과정	교육시간	인원	지역	접수기간	교육기간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전문가 과정	16시간	각 지역별 15명 이상	서울 부산 광주	5.28일까지 6.4일까지 6.11일까지	6.11(금)~6.12(토) 6.18(금)~6.19(토) 6.25(금)~6.26(토)
중소기업 무역금융 전문가 과정	16시간	각 지역별 15명 이상	서울 부산 광주	5.21일까지 5.28일까지 6.4일까지	6.4(금)~6.5(토) 6.11(금)~6.12(토) 6.18(금)~6.19(토)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환위험 관리 전문가 과정	8시간	각 지역별 10명 이상	서울 부산 광주	6.4일까지 6.18일까지 6.25일까지	6.18(금) 7.2(금) 7.9(금)

* 게재 인원 미만 신청자 강좌 마개설

■ 주 관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수원

■ 문의

- 국제금융센터 전략기획실 Tel : 02-3705-6216 Fax : 02-3705-6243 Mail : eduplan@kcci.or.kr
- 한국금융연수원 총합기획부 Tel : 02-3700-1619 Fax : 02-3700-1520 Mail : eduplan@kbi.or.kr

* 상세 정보는 국제금융센터(www.kcci.or.kr) 및 한국금융연수원(www.kbi.or.kr) 홈페이지 참조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변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델부지, 상가건물 모델,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변화기; (옷매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체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 아파트 후순위 대출 (시세의 90%)
- 임대아파트 특별대출 (임대금액의 80%)

주택·논밭·임대나대지 추가 대출

최저금리
분할 상환 가능

금융(부동산 투자) 고소득 안내

- 사업확장고령직(퇴직자우대) 이사 초빙

안전한 금융투자 (부동산 담보) 사업안내

- 1억투자→월이자 150만원~250만원
- 2억투자→월이자 300만원~350만원
- 1천투자→월이자 25만원
- 3천투자→월이자 70만원

• 법무사, 업무대행
철저관리분석
등록번호 서구 제 482호
금리연 24~49%

한국금융투자개발

☎ 374-2760